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오늘 오전 KOCHAM 5월 법률 세미나가 있었습니다.

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(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)

[미국 경제]

- Bloomberg: 미 소비자들이 보는 기대 인플레 낮아졌다.
- Bloomberg: 미 비즈니스 장비 주문 반등... 고금리에도 불구하고
- Bloomberg: 골드만삭스, 당초 7월 금리 인하 예상 취소한다

[미국 금융]

- Bloomberg: 미 주식 반등... 소비자의 낮은 기대 인플레 수치 지표 때문

[휘발유]

- CNN Business: 올여름 휘발유값 예년 보다 조금 높을 듯

[인공지능]

- WSJ: 빅테크 기업들 AI 해외 투자 늘린다

[글로벌 경제]

- WSJ: 미국과 유로존 기업 활동 회복, '글로벌 경제 성장 가속화'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- Bloomberg: 씨티, HSBC, 바클리즈, 직원들에 '주 5일 출근' 요구한다
- CNN Business: 소매업체들, 수사 센터와 협력하여 도난 범죄 대응 강화한다
- WSJ: MS가 AI를 PC로 확장하는 이유는?

[보고서]

- 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 금융 시장정보

[미국 경제]

Bloomberg: US Consumers Tempered Inflation Expectations in Late May 미 소비자들이 보는 기대 인플레 낮아졌다.

- 고물가가 소비자들의 심리 지수에 여전히 부담을 주는 상황이지만 최근 5월 말에 미 소비자들의 인플레 기대 심리는 5월 초보다 낮아졌다.
- 소비자들은 내년 물가가 연 3.3% 상승할 것으로 예상해 이달 초 기대 인플레 3.3%보다 낮았다고 오늘 금요일 미시간대는 발표했다. 4월의 향후 1년간 기대 심리는 3.2%였다.
- 소비자들은 또한 향후 5년에서 10년에 걸쳐 물가는 3% 상승할 것이라고 밝혀 이 또한 이달 초보다는 낮았다.
- 이처럼 물가 기대치가 완화된 부분적인 이유는 이달에 가솔린 가격이 천천히 감소한 탓으로 추정된다.

Bloomberg 기사

Bloomberg: US Orders for Business Equipment Rebound, Defying High Rates**미 비즈니스 장비 주문 반등... 고금리에도 불구하고**

- 미 공장의 비즈니스 장비 주문은 4월보다 높게 나타났다. 향후 불확실한 전망과 높은 차입 비용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여전히 장기적인 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.
- 비행기와 군사 장비를 제외한 장비의 투자 규모를 가늠하는 핵심 자본재 주문 총가치는 지난달에 0.3% 상승했다. 3월에는 약간 하락했었다고 연방상무부는 오늘 금요일 발표했다.
- 반면 3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이른바 내구재 주문은 0.7% 상승해 그 정도 수치로 감소할 것이라는 기대를 뒤엎었다. 운송 장비를 제외한 주문은 0.4% 상승했다.

Bloomberg 기사

Bloomberg: Goldman Axes Bet on July Fed Cut as Market Sees Less Easing**골드만삭스, 당초 7월 금리 인하 예상 취소한다**

- 미 경제가 여전히 강해 금리 인하가 힘들다는 신호가 시장에 있는 가운데 7월 금리 인하를 예상했던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들은 9월이 되어야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고 당초 예상을 번복했다.
- 골드만삭스의 Jan Hatzius 등 이코노미스트들은 “이번 주 초 연준 관리들이 시사한 점을 보면 이들은 7월 금리 인하가 있으려면 인플레이 수치가 개선되어야 할 뿐 아니라 비즈니스 활동이나 노동 시장의 데이터도 의미 있는 개선 징후가 보여져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”고 말했다.
- 이들의 입장 번복은 시장이 판단하기에 연준 관리들이 강한 경제 상황에서 금리 인하에 신중하다고 보는 입장이 강해지는데 따른 것이다.

Bloomberg 기사

[미국 금융]**Bloomberg: Stocks Rebound as Consumers Revise Inflation Path****미 주식 반등... 소비자의 낮은 기대 인플레이 수치 지표 때문**

-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이 높아졌다. 5월 초 미 소비자들의 기대 인플레이가 낮아졌기 때문이다. 이에 증시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.

- S&P 500 다섯주간 연속해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가장 2월 이래 가장 긴 상승 기간이다. 국채는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연준 이사인 Christopher Waller가 이른바 중립 금리를 낮춘 요인들이 바뀔 수도 있다는 발언 후에 움직이지 않고 있다.
- 오늘 발표된 기대 인플레이션 관련해 소비자들은 내년 금리 인상폭을 연율 3.5% 예상해 이달 초 예상치 3.3%보다 낮았다.

Bloomberg 기사

[휘발유]

CNN Business: Get ready for a historic Memorial Day travel rush. Here's what to expect for gas prices 올여름 휘발유값 예년 보다 조금 높을 듯

- 여름의 신호탄인 메모리얼 데이에 미국인 거의 4천4백만명이 이동할 것이라고 AAA는 밝혔다.
-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에 특별히 동북부의 휘발유 비축량 1백만 배럴을 방출해 가격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할 예정이다. 방출 시기는 메모리얼 데이에서 7월 4일 사이로 특히 동북부 지역에 공급을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는 것이다.
- 설사 이러한 방출 전략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은 작년에 하루 9백만 배럴을 소비하고 있어 방출량 1백만 배럴은 사실상 미국인들의 전국 수요의 3시간 미만에 소진되는 양이라는 것이다.
- 어제 목요일 현재 미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3달러 61센트로 2020년 이후 평균보다 약간 높은 상태다.
- 일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올여름에 휘발유 큰 가격 상승은 없겠지만 여름 기온으로 인해 정유회사가 문을 닫거나 공급이 감소해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.

CNN Business 기사

[인공지능]

WSJ: Big Tech Moves More AI Spending Abroad 빅 테크 기업들 AI 해외 투자 늘린다

- 빅 테크들이 해외 시장의 AI 인프라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AI 투자들 확대하고 있다.
- 올해 현재까지 마이크로소프트, 아마존은 해외로 눈을 돌려 AI 관련 투자나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 모두 합쳐 4백억달러를 투자했다.

- 이들 기업은 올해 AI 인프라를 위해 1천억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지출은 수요와 맞물리면서 늘어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.

WSJ 기사

[글로벌 경제]

WSJ: Boost for World Economy as U.S., Eurozone Accelerate in Tandem 미국과 유로존 기업 활동 회복, '글로벌 경제 성장 가속화'

- 5월에 미국과 유로존의 기업 활동이 활기를 찾으면서 글로벌 경제가 성장했다.
- 유로존 경제는 2023년 하반기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금리 인상으로 위축되었다. 반면, 미국 경제는 같은 기간 동안 크게 성장하여 유로존과의 성장 격차가 벌어졌다. 하지만 올해 들어 유로존 경제가 성장하고 미국 경제는 둔화되면서 이 격차가 줄어들었다.
- 그러나 목요일 발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, 유로존의 성장세가 강해지는 동시에 미국의 성장세도 다시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이는 미국 경제가 글로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여겨진다.
- S&P 글로벌에서 발표한 제조업과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(PMI)는 4월 51.3에서 5월 54.4로 상승하여 2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, 이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지수가 둔화되지 않은 것이다.

WSJ 기사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Bloomberg: Citi, HSBC, Barclays Ramp Up Demands for Five Days in Office

씨티, HSBC, 바클리즈, 직원들에 '주 5일 출근' 요구한다

- 씨티그룹, HSBC, 바클리즈가 규제 변경으로 재택근무가 더 어려워진 상황에서 직원들에게 사무실 출근을 더 많이 요구하고 있다.
- 뉴욕을 기반으로 하는 씨티그룹은 목요일 성명을 통해 약 6백명의 미국 직원에게 풀타임 사무실 출근을 요구했다.
- HSBC의 미국 및 미주 지역 인사 책임자 Mabel Rius는 규제 변경이 약 5백 30명의 직원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며, 직원들에게 줄 수 있는 선택지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.
- 바클리즈는 6월부터 수천 명의 직원이 주 5일 사무실 출근이나 고객과의 직접 만남을 위해 출장해야 한다고 발표했다.

- 이 은행들은 팬데믹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유연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. 하지만 금융산업규제당국이 팬데믹 이전의 직장 모니터링 규정을 재시행할 예정이어서 이들은 정책을 변경했다.

Bloomberg 기사

CNN Business: Retailers use police-like investigation centers to fight theft. Shoppers pay the price 소매업체들, 수사 센터와 협력하여 도난 범죄 대응 강화한다

- 홈디포 매장에서 약 15만 달러 상당의 제품이 도난당했다. 이에 소매업체의 내부 보안팀은 수개월 동안 사건을 조사하고 보안 카메라 영상을 확인하여 용의자를 추적했다. 변호관을 추적하여 범죄 용의자들의 네트워크를 파악하고, 이 정보를 샌타클래라 보안관 사무실과 공유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용의자들을 체포했다.
- 이처럼 오늘날 소매업체들이 범죄 조직의 절도 및 사기에 직접 대응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. CNN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, 소매업체들이 법 집행 기관을 지원하고 형사 기소에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.
- 소매업체들은 오랫동안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해 왔으며, 최근 몇 년간은 자체적으로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더 많은 인력과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. 일부 소매업체들은 직원을 위한 신체 착용 카메라를 연구하고 있다.

CNN Business 기사

WSJ: Why Microsoft Is Spreading Its AI Bets to PCs MS가 AI를 PC로 확장하는 이유는?

- 이번 주 마이크로소프트는 연례 컨퍼런스에서 AI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. CEO Satya Nadella는 새로운 디바이스를 통해 애플의 Mac 컴퓨터에 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.
- 마이크로소프트의 핵심 임무는 Copilot이라고 불리는 AI 비서를 가능한 많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. 회사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서비스에 이 기술을 장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, 이는 실제 사용을 촉진하는 데 다소 느린 프로세스라고 여겨진다.
- 반면, 구글은 자사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Gemini AI 도구를 검색 엔진에 직접 탑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.
- 이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체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Copilot을 더욱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.

WSJ 기사

금리 인하 기대 약화에 미 국채 값 하락...신흥국 자산도 ↓

"5월 S&P 미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 발표 후 금리인하 기대 줄어"

미국의 금리인하 시기가 미뤄질 것이란 전망이 커지며 미 국채 가격과 신흥국 자산 가치가 하락했다.

23일(현지시간) 미국 증시 마감 무렵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가 연 4.48%로 전날 같은 시간 대비 0.06%포인트 올랐다.

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 만기 국채 금리는 연 4.94%로 0.07%포인트 상승했다.

...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
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

KOCHAM | 460 Park Ave. Suite 410 | New York, NY 10022 US

[Unsubscribe](#) | [Constant Contact Data Notice](#)